

“익숙한 교재로 실전 훈련”... 시교육청 맞춤 전략 제시

수능 D-9... 마무리 학습 전략

연계교재 활용 최종 점검 주문
실제와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
취약점 보완, 영역별 가중치 공략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4일 광주시교육청이 수험생 최종 마무리 학습 전략을 제시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등급을 바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해 수험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각오로 마무리 학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교육청은 EBS 연계교재 직접 체감률이 높은 만큼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처럼 초고난이도의 길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했을 때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지난해 ‘불수능’ 수준으로 어려웠던 반면, 9월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수능시험의 난이도도 6월보다는 다소 쉽고 9월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교육청은 6·9월 모의평가 문항의 발문과 선택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수능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EBS 연계교재로 최종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 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4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지문이나 자료를 활용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문항 자체 학습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노트를 정리하고, 수학은 개념과 원리 학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판단하는 등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꼼꼼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와 탐구는 단골문항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과목별 특징과 보기 자료를

정리해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실전 훈련을 연습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실전 대비 능력도 기르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오전 8시40분 국어시험부터 오후 4시37분 탐구시간이 끝나는 수능 시간표대로 문제 풀이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 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한 문항이라도 더 맞히겠다는 필사의 의지로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10일 동안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며 특히 자신의 성적이 등급컷에 가깝다면 한두 문항 차이로 등급이 나뉘어 수시 지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정시에서는 1점 차이도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한두 문항 차이로 백분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시모집의 경우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모집은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고려해 비중 높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일부 중위권 대학의 경우 특정 영역에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큰 대학도 많으므로 목표 대학이 수능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지 미리 체크하고 비중 높은 영역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10일 남은 시점, 고3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관리, 최종 마무리 학습이다”면서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헌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지원 대책 마련

교통 등 5개 분야 세부계획 수립 수능 당일 종합상황실 등 운영

광주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수능은 오는 14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실시되며, 광주지역 수험생 1만6846명이 응시 예정이다.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교통소통 원활화 △119 구급대응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수능 시험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4주 동안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4일부터 13일까지 시험장 주변 공사장 현황을 파악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지진가속도계 측기 및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수능 당일은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광주시·자치구 직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수능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38개 버스 노선에 대해 총 78회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자치구 및 모범운전자회 등 497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을 지도하고,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전용택시 무료 수송과 광주경찰청 순찰차 69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해 수험생 긴급 수송을 지원한다.

시험장에서 응급환자나 안전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문 구급 자격자를 배치한다. 영어 듣기 평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소음과 생활소음을 통제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종료 후 광주시는 총장로 등 주요 변화가를 중심으로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아웃리치(위기청소년 구호)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의 안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장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최대 10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기소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현산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시공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산 측 총 책임자인 이모(52)씨와 가현 측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그 외 현산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금고 2년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으며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가현건설 법인에 벌금 7억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동붕괴참사를 내고 개정을 다짐해 놓고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시공사·하청업체·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

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지지대(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현 측은 “현산의 승인 하에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으며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연말이면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를 마무리 한다. 제3자에 의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이르면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민헌기 기자

여수서 지인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15시간 만에 검거

한밤 중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가 범행 15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여수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14분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 있던 여성 B(7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4일 새벽 숨졌다.

당시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은 현관문이 열려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날 오후 2시께 순천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도주를 위해 진주시로 향하는 버스표를 구매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둔 A씨는 여수에서 선원 생활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잠겨있지 않은 B씨의 대문을 열고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